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5월22일(목). 13:00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 순서

사회 :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

여는 말씀

유가족 편지글 낭독

사업 계획 발표

각계 발언

발족선언문 낭독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구성 사업 보고

## 1. 지역 활동 보고

[지역별 현황]-5/21 현재

- 강원 : 구성 안됨. [강원연석회의] 차원에서 주중 촛불집회 진행 중.  
(춘천, 홍천, 원주, 강릉, 속초) 원탁회의 참여여부 -->이후 논의 예정
- 서울 : '서울시민촛불원탁회의' 구성. 매일 촛불(파이낸스 앞), 동네 촛불도 곳곳에서.
- 인천 : 지역대책위 구성(5/21=지역연대+시민연대+개별단체)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 촛불 진행. 단체별 추모행사 및 서명운동 진행 중.
- 대전 : 추모위원회(600여 개별인사로 구성). 매일 촛불과 서명. 5/17 집중촛불(2천여명), 대전지법 6급 공무원의 유가족 비방글 중징계 요구 중.
- 충남 : 천안 대책위 구성, 매일촛불과 서명운동. 아산(매일 촛불)  
. 시,군단위 촛불과 1인시위 등 공동행동 진행 중.
- 충북 : 국정원시국회의가 세월호 대책위로 전환(47~8개단체 참여).  
청주,충주-매주 금요일 촛불집회, 제천,음성- 매일촛불, 옥천,보은 비정기적 촛불집회 진행 중.  
이후 원탁회의 참여여부 논의 예정.
- 경북 : 구성 안됨.  
시민단체와 자발적촛불 진행. 구미-매일촛불, 경주,포항-매주 목요일, 경산,김천-간헐적 진행.
- 전북 : 지역대책위 구성(4~50여개 단체). 원탁회의 참여여부 논의 중.

진기승 노동자 투쟁 중. 전주, 익산, 군산-매주 금요일 촛불, 수요일마다 자발적 촛불도 진행중. 순창(월), 장수(월), 고창(목), 남원도 촛불.

□ 제주 : 지역대책위 구성(이번 주). 제주시청, 서귀포 -매일촛불 진행. 주말집중 촛불.

□ 대구 : 대책기구 구성,  
"잊지않을게, 행동할게, 밝혀낼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천만 서명운동과 촛불집회  
-매일 5시부터 서명, 7시 촛불, 집중촛불: 5/23(금).대구백화점.

□ 광주 : 구성 안됨, 지난주까지 매일 동네 촛불(10여곳), 시국회의차원에서 매주 주말집중 촛불(5/17집중촛불. 5천여명), 자발적 평일 촛불(3~4곳). 서명운동(청소년.대학생 중심 서명단)

□ 부산 : 대책기구 구성. 지난주 서명(5만여명) 유족에 전달,

□ 울산 : 대책기구 구성.

□ 경남 : 대책기구 구성. 지난주 서명(3만여명) 유족에 전달.

## 2.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공지

1) 홈페이지 주소 : [sewolho416.org](http://sewolho416.org)

2) 범국민서명페이지 : [sign.sewolho416.org](http://sign.sewolho416.org)

3) 이메일 : [sewolho416@gmail.com](mailto:sewolho416@gmail.com)

##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보내온 호소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확실한 법적, 양심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기존의 특검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바,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난 후에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범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양사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모든 안전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선진화 하자는 서명 운동입니다.

세월호사고 유가족들의 바람은, 희생자의 죽음으로 2014년 4월 16일을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려 다시는 이 같은 인재 또는 관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소 거창한 꿈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모아주신 의견(서명서)은 특별법 제정과 수사, 책임자 처벌의 모든 과정에 있어 대한민국의 권리를 주장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 유가족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돌봐 주시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제야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 마음 영원히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세월호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사업 계획

## 1. 대응 기초

- 1) 실종자 신속 구조, 희생자 추모,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대책 마련
- 2)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 3) 박근혜 정권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
- 4)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2. 당면 사업 방향과 과제

### 1) 실종자 수색 구조 촉구

- 진도 팽목항 방문자 안내

### 2) 서명운동 활성화 및 각계 시국선언

- 1000만 서명운동 전개, 5월 31일까지 100만 명 서명 추진 계획
- 각 단위 지역으로 서명운동 확장 논의 필요.

### 3) 진상조사 활동

- 국민 참여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강화
- 시민사회 차원의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활동 및 대책 논의 촉진
-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국민참여형 세월호 참사 국가위원회> 참여의 근거, 주체, 내용의 마련
-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 활동의 내용적 근거 제공

### 4) 특별법 제정 투쟁

- 성역 없는 조사. 대통령도 특별법 조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5월 말까지 특별법 국회에서 통과 시키라고 요구
- 유가족,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규명기구 구성 요구

### 5)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강행에 따른 대응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규제완화 지속 추진 의지 밝힘.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이라는 점에서 원탁회의 차원의 대응 논의 필요.
- 의료, 철도 민영화 등 해당 단위와 연계 사업 구상.

#### 6) KBS 언론 등 정상화 투쟁

- 길환영 사장 퇴진 투쟁과 청와대 외압 압력 행사 사실 확인 촉구, 책임자 문책 투쟁
- KBS 노조 등과 연계 공동 추진

### 3. 사업계획

#### 1. [팽목항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

-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

##### 1) 취지

-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시민들의 함께 기다리는 마음이 이어지도록 한다.
- 마지막 한 사람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지 지켜보는 시민들이 있음을 드러낸다.
-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조용히 위로한다.

##### 2) 추진 계획

- 매일 저녁 1시간씩 진도 팽목항에서 가만히 곁을 지키는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감.
- 서울에서 매일 왕복하는 버스를 운영하고 간절한 기다림을 나누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을 뒷받침.
- 진도 팽목항에서 시민들이 조용히 할 수 있는 편지쓰기 등을 제안.
- 진도 VTS 관제센터 앞에서 신속 구조를 기원하는 행동을 제안.

#### 2.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 행동 - 천만의 약속!

##### 1) 대회의 상

- 일시, 장소 : 2014년 5월 24일, 오후 6시 청계광장
- 방식 : 수도권 집중, 촛불 이후 시내 평화 촛불 행진,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진행.

## 2) 천만의 약속을 위한 5.24 국민행동

- 참가자에게 드리는 제안 '10만의 서명 받아오기 국민행동'
- : 5만 명이 서명지 한 장(20명) 채워오기! 직장동료들에게! 같은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네주민들에게!
- 유가족 분께 국민 서명 전달.

## 3) 촛불 및 행진

- 편지낭독 \_ 단원고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 청소년
- 노래 함께 부르기
- 영상
- 대표 연설 등
- 국민 행동 제안 : 촛불참가자의 이름으로 5천만 국민에게 행동호소, 천만서명 특별 법제정, 행진선포 (제안문 낭독) 낭독자 선정

### \* 촛불 이후 범국민 촛불 평화 행진 진행

### \* 촛불 평화 행진 진행하며 시민채증단 활동

평화 행진을 방해하는 경찰의 억압적 행위에 대해 채증하고, 이 내용을 온라인 공간에 사례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제보된 내용을 모아 법적 대응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 3.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 1) 취지

- 국민 모두가 유가족의 마음으로 유가족 실종자 가족의 손과 발이 되자.

### 2) 1차 서명지 전달보고

- 5/13부산 5만, 5/18 대학생, 5/19 경남 전남 경북 3만, 그 외 5만 (1단계 14만여 명)
- 가족대책위 서명 상황실과 서명운동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함
- 온라인서명 페이지 개설 4일 만에 18,000명의 서명.

### 3) 2단계 백만 명 달성 목표! - 5월 31일까지

- 노란리본 실천단 모집 및 운영
- 원탁회의 소속 및 촛불에 동참하고 있는 자발적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모집
- 매일 거점 서명실천 / 주말 집중 서명활동 하루 5만 이상 추진 서명 추진 계획

##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업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구성하여 사업 추진

### 1) 목표

- 시민사회 차원의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활동 및 대책 논의 촉진
-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국민참여형 세월호 참사 국가위원회> 참여의 근거, 주제, 내용의 마련
-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 활동의 내용적 근거 제공

### 2) 활동 방향

- 활동 방향 1 : 진상/원인 규명 관련
- 활동 방향 2 : 대책/대안 관련

### 3) 조직 구성

- 공동위원장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 (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 위원(상임)과 정책자문위원을 둔다.

### 4) 사업계획

- ① 세월호 진상 규명 및 대책 모니터링
- ②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과제 및 대책 논의 과제 보고서 발간
  -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가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과제를 1차 정리하여 6월 중에 발표하고자 함.
- ③ 국민참여형 국가위원회 방안 마련 연속토론회

○세월호 참사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1차 원탁 토론회

- 일시, 장소 : 5월 28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진행안>

-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원탁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가자 미확정)
-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섭외 중)
- 여야 국회의원

## 5.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사업

- 존엄과 안전위원회 사업계획

### 1) '존엄과 안전에 대한 인권선언(가칭)' 운동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존엄과 안전에 대한 인권선언'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300여명의 소중한 '삶들'을 잃었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존엄과 안전에 대한 약속'을 만들고자 한다.

### 2)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의 기초

1. 존엄과 안전은 모든 이들의 권리이다. 그러하기에 생명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결코 '비용'과 '효율'로 계산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정책과 사회의 운영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1.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은 '재산'이나 '영토'의 안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안전이다. 국가와 기업은 안전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와 기업은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자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국가에 의한 통제와 감시 혹은 전문가나 기업에 위임하는 것으로는 안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안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율적 권리가 있어야 하고, 위험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감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어야 안전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존엄과 안전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이다. 가난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소수자라는 이유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평등하게 제공되거나, 권리 행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3) ‘인권선언’ 내용 마련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행동한다.

- 규제완화와 안전업무의 외주화, 구조와 감시업무의 민영화가 낳은 폐해
- 재난과 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
- 알권리와 모일 권리, 행동할 권리가 중요한 이유와 그것에 대한 억압의 폐해
- 사례와 문제, 평등한 권리를 위한 대안, ‘인권선언’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대중행동.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소개

### 1. 세월호 참사 대응 기구 명칭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2. 체계 및 구성

1)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610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구성 (5월22일)

- 기자회견문 뒤에 첨부

2) 체계

#### ① 고문단

김상근 목사,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중배 전 MBC사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배은심 전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회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총회의장, 이선종 교무,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명예회장, 임재경 언론인, 정연주 전KBS사장, 청화 스님, 최영도 전 국가인권

위원장, 함세웅 신부(이상 15명 확정. 이후 추가)

② 공동의장단 : 구성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

③ 대표자회의 : 참가 단체, 지역의 대표자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 대표자회의를 둠.

④ 운영위원회

- 참가 단체 집행책임자 + 지역 집행책임자로 구성, 다수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둠.
- 각 단위 집행책임자가 참여 하는 일상적 논의, 집행기구

⑤ 각종 위원회

-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 존엄과 안전 위원회
- 시민행동위원회
- 대외협력 위원회
- 언론 정상화 위원회
- 범국민서명운동위원회

(이후 운영위원회 통해 발의하고 구성 가능)

⑥ 상황실

- 상황실을 두고 집행 추진.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실종자 가족 분들의 애타는 기다림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희생자 가족 분들의 비통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생존자와 그 가족 분들의 차마 안도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위로의 말을 찾아 애도의 자리를 만들 때에도, 선뜻 그 마음들을 모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애도를 불순한 것으로 몰아가는 세력들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들의 짐을 더하는 것은 아닐지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슬픔과 분노에 함께 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힘을 결집시키겠습니다. 현재진행형의 참사 속에서 치유의 시작을 움푹을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오늘 발족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다는 소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잠들어 있을 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달리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에서부터 구조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는 구석구석에 배어있었습니다. 규제 완화, 기업의 무책임, 정경 유착, 무능한 관료, 거짓 언론 등 사고가 참사로 이어진 고리마다 이미 굳어버린 반생명의 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통곡에 대답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작은 반성을 보태며 미안한 마음으로 참사의 아픔에 함께 하려 할 때, 홀로 책임을 회피하며 입을 다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밝힐 뿐,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대통령의 불통을 확인했습니다. 사회 각계의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규제 완화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성찰 없음을 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길을 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소중한 생명들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로 한국 사회가 방향타를 돌리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각자의 대답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민들의 힘이 모여,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데에 한 치의 물러섬도 주저함도 없는 사회를 만들 때에, 세월호 참사의 모든 상처들도 아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신속한 구조수색을 촉구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범국민적으로 기리기 위한 추모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의혹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참사의 전 과정에 걸쳐 조사 대상에 성역 없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규명의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연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가겠습니다.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사회를 움직이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서명으로 시작하는 천만의 약속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한 선언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각성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시민행동들이야말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크고 작은 행동들을 모아가며 이 길의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 일동

**참가단체 총 618개 단체 (14.5.21)**

4.9통일평화재단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 인천민예총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10월항쟁유족회 120년농민혁명계승투쟁위원회 18대대선원천무효국민행동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6.15경남본부 6.15김해본부 6.15대경본부 6.15시대길동무'새날' 6.15진주본부 6.15창원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ESgroup e끌림 iCOOP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iCOOP대구행복소비자생활협동조합 KYC(한국청년연합)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강동촛불 강릉청년회 강북촛불 강서촛불 강원노동전선 강원대학생행진 강원연대회의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건강권실현을 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전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전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겨레사랑청년회 경기대련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가톨릭농민회 경남겨레하나 경남범민련후원회 경남시민사회연대회의 경남시민추모위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여성연대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장인련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회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인범민련 경인여대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계급정당추진위 고양평화청년회 고흥민주단체협의회 고흥자치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강원본부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강원본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공무원노조전남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공주사

대구고태안시설해병대캠프유족 공주청년회 관악촛불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  
 합 광양참여연대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서구청년회 광  
 주시농민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  
 장애인부모연대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 광주전남대학생연합 광주전남청년연대 광주전남추  
 모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푸른청년회 광진촛불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희망네트워크  
 구례민주사회단체협의회 구로청년회 구로촛불 군인권센터 군포청년회 금산참여연대 금천촛  
 불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포민주시민단체연대 김해YMCA 김해진보연합 꽃다지 나라사  
 랑청년회 나주사랑시민연대 남서부진보연대(준) 노동건강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인권실  
 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정치연대 노사모 노원청년회 노  
 원촛불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농부와목수 다산인권센터 단국대민주동문회 당진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경학생연대회의 대구DPI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  
 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준) 대구경실련 대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  
 노동세상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  
 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지하철참사회생자대책위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  
 람들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  
 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  
 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더나은 도봉촛  
 불 동대문촛불 동부시민사회연구소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아투위 동작청년회 동작촛불 땅과자  
 유 리슨투더시티 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포촛불 목포  
 KYC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사랑청년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포럼 문화다양성포  
 럼 문화로놀이짱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교협 민  
 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인천지부 민예총경남지회 민예총울산지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  
 회서울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서울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남지부(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  
 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주노총천안시위원회 민주노총충북지부충북도연맹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  
 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충북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연합 민중행동 밀양  
 참여자치연대 박종철기념사업회 범민련광주전남연합 범민련서울연합 복지세상 복지세상을열  
 어가는시민모임 부산민중연대 부산청년회 부산추모위원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부천청  
 년회 북부진보연대 분당청년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  
 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제연대청솔의집 사천진보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청진보연합 새길  
 청년회 새로하나 새바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언론포럼 생명평화기  
 독연대인의협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활협동조합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서대문촛불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민권연대 서울노동광장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울의소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전국교수노조 서민민생대책위 서울촛불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초촛불 성남청년회 성남평화  
 연대 성동촛불 성북촛불 성서대구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위(17) 세월호참사대응전북대책위  
 (40) 세월호참사시민촛불원탁회의 세월호참사회생자추모진상규명천안시민대책위 세월호 희

생자 대전시민추모위원회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소풍 송파촛불 수원  
 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순천YMCA 순천YWCA 순천청년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사회단  
 체연대회의 시민주권행동 시흥청년회 신안포럼 실로암사람들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  
 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이쿱생협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진보연대 안성사랑청년회 안성진  
 보연대 안양일하는청년회 안양희망연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양산YMCA 양산진보연합 양  
 천촛불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충북본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  
 수YWCA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시민협 열린사회희망연대 영등포촛불 예수살기 예술과도시사  
 회연구소 예술인소셜유인온(준)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일하는예수회' 오산청년회 와우책문화  
 예술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위원회 용인진보연대 용  
 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미디어연대 울산북구진보연대(준) 울산여성  
 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청년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원주청년회 유가협 유가협  
 수도권지회 유알아트 은평촛불 의정부청년회 이일재선생추모사업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  
 주연대 인권교육'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인권중심'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감리교사회연  
 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  
 터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촛불연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평등교육학부모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일상예술창작센터 일하는공동체 자주여  
 성연대 장애우권익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지역공동체 장흥진보연대(준)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전교조인천지부 전교조전남지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국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  
 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전국회의울산지부 전국회의경기지부 전국회  
 의경남지부 전국회의대경지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 전농강원도연  
 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부경연맹 전농전남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성강원도연맹 전여  
 농경남연합 전태일재단 전해투 굶은벗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조계종노동위원회  
 조선대민주동우회 종로촛불 좌파노동자회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주거복지센터 중랑촛불  
 증평참여자치시민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속가능한사회연구  
 소 진도민주단체협의회 진도시민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  
 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진보연합 진해진보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  
 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YMCA 창원YWCA 창원진보  
 연합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농민회 천안아산경실련 천  
 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평등교육학부모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  
 연합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  
 구현전국연합 첨단교육희망네트워크 청년나래 청년다락 청년렛츠 청년유니온 청년이그나이  
 트 청년인트로 청양시민연대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청춘멘토 추모연대 추모연대광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문풍지대 충북  
 NGO센터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도시산업선교회 충북민예총 충북  
 민족문제연구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  
 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광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  
 인연대 충북이주노동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  
 민연대 충북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충북환경운동연합 코리아서울연대 코리아연대 탈핵대

구시민행동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해병대캠프유가족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 파도 파주평화청년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연대 평택지역  
시국회의 평택청년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  
압공대위 푸른생협 풀뿌리 주민연대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하남청년회 하남희망연대 학벌  
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살림경남 한국교육삼남회 한국교회인권센터  
(ncck)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노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  
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인권행동 한국작  
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빛회 한뼘인권행동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민중연대 해남YMCA 해남  
민중연대(준)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복교육시민운동본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전선 홍성  
YMCA 화성청년회 화성희망연대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정의 활개 홍사단 홍사단충북지부 희  
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희망진해사람들 희망청년연대 희망청년회 <끝>